

2026년 8월 7일

Hana FX Daily Letter

호르무즈 해협 불확실성 속 고개드는 美 금리인상



외환파생상품영업부

달러/원 전망 및 동향

• 금일 전망 : 글로벌달러 강세에도 美 고용지표 대기하며 제한적 상승

daily range 예상: 1,418 ~1,430원

■ 이란의 미국 등 적대국 소속 선박 호르무즈 해협 통항 금지 검토 소식에 불확실성 확대되며 글로벌 달러 강세.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물가에 따라 9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며 강달러 재료 가중, 야간 달러원은 정규장 증가 대비 소폭 상승한 1424.1원 마감. 이를 반영하여 금일 달러원 환율은 개장 후 상승 압력 받을 것으로 전망. 다만 금일 야간 예정된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 등 고용지표 발표에 적극적인 포지션 플레이는 제한될 것으로 예상. 대기중인 ADR 및 네고 물량 역시 상단 제한할 요인임. 아시아장에서의 엔화 약세 정도에 일부 연동될 것으로 전망

■ 전일 동향 : 6일 달러/원 환율은 전일대비 1.6원 오른 1,424.1원 마감

전일 달러원 환율은 1423원 출발 후 장 초반 네고물량 및 역외 기관 숏플레이 더해지며 하방압력 강하게 받는 모습. 오전 중 1420원을 하향돌파 후 단숨에 1414.5원까지 저점을 낮춤. 다만 국내중시 약세에 따른 커스터디 물량 및 저점 인식 수요에 하단 지지, 1420원 선을 회복 후 1423.8원으로 주간 거래 종료. 야간 장 글로벌 달러 강세에도 큰 변동성 없이 1424.1원 마감

국제 통화시장 이야기

■ (달러인덱스) 호르무즈 해협 관련 불확실성 확대에 의한 유가 급등 및 케빈 워시 의장의 금리 인상 검토 소식에 글로벌달러 강세, 달러인덱스 99.97선으로 상승

■ (유로-달러) 유로화는 강달러 분위기에 달러 대비 약세 흐름. 유로달러 환율은 그간의 강세를 되돌리며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한 1.1525달러로 뉴욕장 마감

■ (달러-엔) 엔화 역시 달러 대비 약세 흐름 이어가며 미-일 당국의 공조 개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약세. 달러엔 환율은 상승세 이어가며 158.43엔 뉴욕장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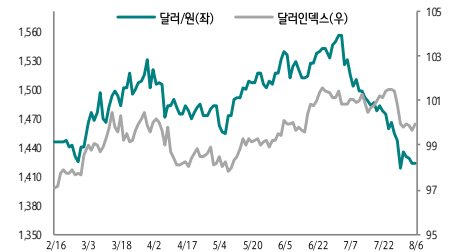
하나에서 전해주는 FX News

■ 뉴욕 증시는 간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에 더하여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의 통항 금지 검토 소식에 중동지역 불확실성 증대로 3대 지수 동반 약세. 다우 -0.85%, S&P500 -0.18%, 나스닥 -0.06% 기록하며 동반 하락.

■ 미 국채금리는 케빈 워치 연준 의장의 9월 금리인상 검토 소식과 美고용 데이터 호조로 상승세. 알파벳의 250억달러 회사채 발행이 채권 약세 재료로 추가 작용하며 금리 상승세 가중, 미 국채 2년물 6.4bp 상승한 4.258%, 10년물은 6.4bp 상승한 4.684%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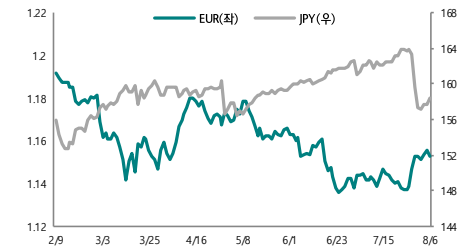
■ 유가는 호르무즈 해협 협상 불확실성 확대에 WTI +2.75%(77.2달러), 브렌트유 +3.82%(82.49달러) 기록하며 4거래일 만에 반등.

원화 환율 추이



구분	시가	고가	저가	NDF
달러원	1423.0	1429.5	1414.5	1,422.5

주요 통화 추이



구분	EUR/USD	USD/JPY	USD/CNH
종가	1.1525	158.43	6.7484
전일대비	-0.0029	+0.68	+0.0008
재정환율	1,641.28	898.88	211.03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시간	지표	예상	이전
21:30	美 평균 시간당 임금 (MoM)(7월)	0.3%	0.3%
21:30	美 비농업고용지수 (7월)	88K	57K
21:30	美 실업률 (7월)	4.2%	4.2%

각국 주요 지표

구분	종가	전일비(%)
S&P500	7,709.96	-0.18%
나스닥	26,348.35	-0.06%
다우	53,885.10	-0.85%
유로스톡스50	6,502.56	+0.39%
니케이225	65,683.26	-0.93%
코스피	6,296.38	-4.58%
미 국채 2년	4.258%	+6.4bp
미 국채 10년	4.684%	+6.4bp

자료: Bloomberg 및 인포맥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결과에 대한 정확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투자 등 금융거래는 본인의 책임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본 정보는 상품 가입 권유 및 유인 목적이 아닌, 고객 앞 참고를 위한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